



미 증시, 파월의장의 완화적 발언에도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14일(수) 미국 3대 증시는 BOA(-2.5%), 씨티(-0.3%) 등 금융주들의 잇따른 호실적, 차세대 아이폰 생산량 확대 기대감에 따른 애플(+2.4%) 신고가 경신, 완화기조를 재확인 시켜준 파월의장의 발언, 추세적 물가 급등 우려를 완화시킨 베이지북 등 긍정적인 재료들이 상존. 그러나 UAE의 OPEC과 산유량 상향 합의 소식에 따른 국제 유가급락(-3.1%, WTI), 2분기 실적시즌 관망심리 등이 에너지 및 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장 중 내내 하방압력을 가하면서 3대 증시는 혼조세 마감(다우 +0.1%, S&P500 +0.1%, 나스닥 -0.2%).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0.9%), 부동산(+0.9%), 유틸리티(+0.8%) 등이 강세, 에너지(-2.9%), 금융(-0.5%), 헬스케어(-0.2%) 등이 약세.

미국 증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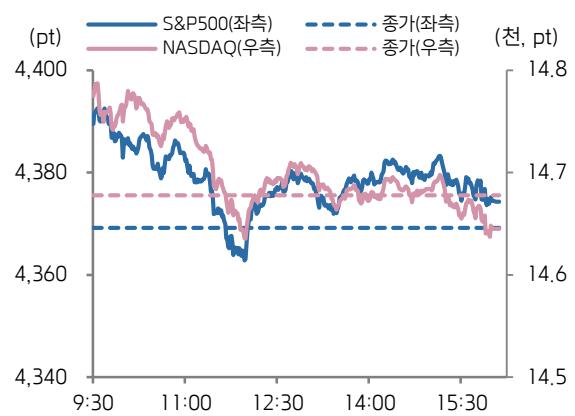
전거래일 시장 참여자들의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를 완화시킨 데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컸음. 파월 의장은 하원 증언을 통해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연준의 정책 전환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강조. 향후 테이퍼링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해나갈 것이며, 테이퍼링을 단행하기 전 시장에 사전적으로 통지할 것이라고 언급.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향후 수개월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만약 너무 높이 상승하면 연준은 전면적인 정책 변경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그러면서도 조기 금리인상 등 인플레이션에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이처럼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파월 의장의 완화적인 발언은 지난 13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에 이어 전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7.3%YoY, 예상 6.8%)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급등 압력이 확인됐음에도, 시장참여자들의 인플레이션 불안감을 달랠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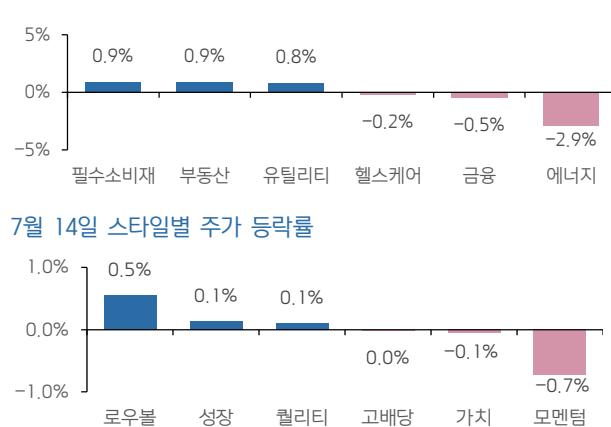
또한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 성장세가 강해졌으며, 현재의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공급망 문제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 쪽으로 무게를 뒀다는 점도, 시장 참여자들이 베이지북을 양호하게 소화할 수 있게 만들었던 요인이었음.

S&P500 일중 차트(7월 14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14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7%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4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44.6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생산량 호재에 따른 애플 신고가 경신이 국내 애플 밸류체인주에 미칠 영향
2.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 주요 경제지표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 우려 해소 여부
3. 한국판 뉴딜 투자 수혜 테마주들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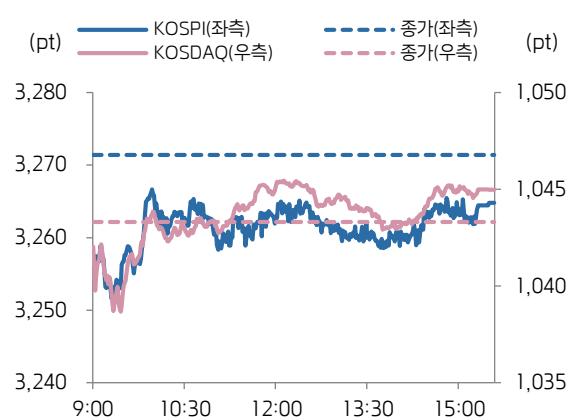
14 일(수) 코스피는 미국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파월의장의 의회 연설 경계심리, 장중 1,150 원대를 상회한 원/달러 환율 영향 등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하락 마감. 다만, 정부의 한국판 뉴딜 투자규모 확대(160 조→220 조) 소식 등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지수 하단을 지지(코스피 -0.2%, 코스닥 +0.2%). 업종별로는 유통(+1.1%), 비금속광물(+0.7%), 철강금속(+0.6%) 등이 강세, 의료정밀(-1.5%), 은행(-1.4%), 운수창고(-1.3%) 등이 강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30 억원, 3,160 억원 순매도, 개인이 6,050 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미국의 잇따른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에도 완화적 기조를 재확인 시켜준 파월 의장의 빌언이 안도감으로 작용하면서 전거래일 하락세를 딛고 반등을 시도할 전망. 반도체 공급부족 장기화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 속에서 애플이 생산량 증대 소식에 힘입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도 국내 애플 관련 밸류체인주들에게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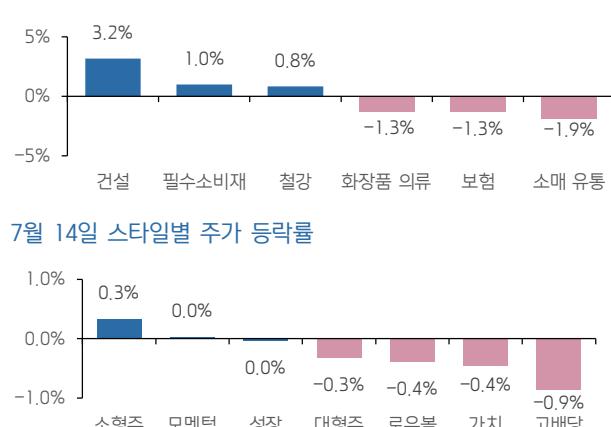
다만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히 2 분기 실적보다는 추후의 실적 전망이 더 중요해진 만큼 이를 소화해야하는 부담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이는 금일 뿐 아니라 추후에도 장 중 상승 탄력을 둔화시킬 가능성에 유의. 추가적으로 최근 국내 외국인들의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원화 약세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서 기인한 위안화 약세도 영향을 가한 측면이 있으므로, 장중에는 중국의 6 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경제지표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7월 14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14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